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

(시편 78:1-72)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은 더욱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그 큰 은혜를 잊는 사람이려면 시험과 시련의 때에 그를 의지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과거사를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긴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한 시편 78편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말 것과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 과거의 중요성

시편 78:1-8절은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해 보는 서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① 과거를 배워야 한다

2절에 있는 '비유'란 히브리어로 '마살', 곧 교훈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사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롬 15:4).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②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5절) 라고 하셨으며 그리하여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해야 한다"(7절)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8절)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지 못하고 가치의 중립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이 사회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목표가 희미해짐으로 자기중심적 삶이 가져온 가치 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칠 바를 가르치고 배울 바를 배워야 합니다.

2. 에브라임의 경우에서 배우자(9-16절)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에브라임은 그리 빼어난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영역 안에 있었던 실로의 성막을 버리고(60절),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68절). 가나안 정복기에 에브라임은 12지파 중 아주 유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뜨린 죄를 범하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린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불신앙에 빠짐으로 에브라임이 받을 왕권을 유다 자손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에브라임의 빼앗긴 영광을 상고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존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17-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 보자고 했습니다(17-31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주시지 않음은 그가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첫째 감사치 않는 것, 둘째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원망과 불신의 죄를 범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할지언정 원망이나 시비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시기 전에 회개하며 받은 은혜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4. 용서받지 못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32-39절). 하나님은 이 같은 거짓 회개를 토해버리셨습니다. 참 회개는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는 대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39절). 용서받지 못할 죄를 긍휼로 사하신 것입니다.

5. 과거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42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은 더욱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그 큰 은혜를 잊는 사람이려면 시험과 시련의 때에 그를 의지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치시고(43-51절)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며 지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패역은 광야에서보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 더 했고(8절), 마침내 하나님이 진노하시므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습니다(59절). 그러나 여기에 새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절되고 유다가 선택되었습니다. 실로는 버림받고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모든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증거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성경통독 돕는다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된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에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일독이상 하기 위하여 시작된 성경일천독 대장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마지막 성경통독사경회를 개최한다. 연초에 지원서를 제출

하였으나 아직 완독하지 못한 성도들의 이름이 5층 지도에 게재되어 있다. 모든 성도들이 사경회에 참석하여 완독한 후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통독시간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18(화)	12/19(수)	12/20(목)	12/26(수)	12/27(목)	12/28(금)
1교시: (08:~10) 휴식:(15분)	개회예배(15분) 예레미야장-31장		마가복음1장- 누가복음11장		요한계시록1장- 창세기22장	민수기5장-36장
2교시: (10:15~ 12:00)	예레미야32장- 에스겔4장		누가복음12장- 요한복음11장		창세기23장-50장	신명기1장-31장
점심: (12~13:00)						
3교시: (13~15:00) 휴식:(15분)	에스겔5장-40장	요엘1장-말라기4장	요한복음12장- 사도행전22장	고린도후서1장- 디모데후서4장	출애굽기1장- 40장	신명기32장- 사사기7장
4교시: (15:15- 17:00)	에스겔41장- 호세아14장	마태복음1장- 28장	사도행전23장- 고린도전서16장	디도서1장- 유다서	레위기1장- 민수기4장	사사기8장- 사무엘상13장

천안공원묘원 계약갱신

12월21일(금)까지 완료토록

1992년에 계약한 천안공원묘원의 15년 계약이 12월10일(월)부로 만료되었다. 우리교회는 계약 갱신을 위한 기일이 촉박하여 아직 성도들이 사용하지 않는 62기에 대한 재계약을 지난 12월10일(월)에 15년 관리 대금으로 선납(先納)하여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지난 1992년에 천안공원묘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였지만 아직 사용을 하지 않은 성도들은 교회계좌로 12월21일(금)까지 입금하면 된다. 이날 까지 입금을 하지 않게 되면 모든 계약은 소멸된다.

· 계좌: 하나은행 215-196427-02404

(예금주: 서울교회)

· 금액: 1,124,400 원(15년 관리비)

성경 일천독 통독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14독> (12교구) 김경철 장로 <10독> (5교구) 이운영 권사
- <7독> (5교구) 서영애 권사 (7교구) 최영희 집사
- <5독> (2교구) 이응선 장로 (13교구) 문금희 성도
- <4독> (9교구) 이남성 집사
- <3독> (1교구) 한치중 권사 (2교구) 안창희 집사 정봉금 권사 (7교구) 이성직 집사 (12교구) 이동수 장로
- <2독> (1교구) 임옥군 집사 장양일 집사 홍순복 사모(2교구) 김미자 권사 김원중 집사 박희서 집사 (3교구) 김세제 장로 이운진 권사 이해순 권사 홍정란 집사 (5교구) 박창희 권사 (13교구) 박경애 집사 함인호 권사 (14교구) 김상욱 장로 권길자 권사 김경한 집사
- <1독> (1교구) 백남은 집사 김숙영 성도 오종원 성도 김연화 집사 오경미 성도 김진희 집사 송인수 집사 임송자 권사 장기숙 집사 김지희1 집사 최성희3 집사 박정희 집사 (2교구) 김원중 집사 (3교구) 탁경준 집사 전정숙 권사 최원자 권사 이은옥 권사 김윤근 성도 송인권 집사 원용규 집사 (4교구) 김금준 집사 김명석 성도 백혜숙 집사 최화미 성도 이영자 성도 (5교구) 김혜연 집사 이정자 권사 (7교구) 김희진 권사 김재성 집사 유순섭 권사 (9교구) 백해인 집사 윤요셉 집사 안재희 성도 (10교구) 진선자 권사 김명숙 권사 (11교구) 이영조 집사 이흥기 집사 왕경래 장로 (12교구) 김선영 권사 윤정식 권사 이안순 권사 유인정 성도 김기진 성도 (13교구) 박희석 성도 박정란 성도 김순덕 집사 고선옥 집사 이영미 성도 류동석 성도 백정숙 집사 김애순 집사 박영일 집사 위현주 집사 이성자 성도 우경애 집사 김장섭 집사 신도섭 집사 김명숙 집사 (14교구) 이상설 집사 차도훈 집사 남태영 집사 하태현 집사 남경수 집사 차영도 집사 이순영 집사 정수주 권사 김길자 집사 권선자 집사 (초등부) 문광연 강은정 김성환 (고등부) 권성우 권민정 (예바다부) 노경설 성도 김복순 선생 (청년부) 이두원 한대석 오경채

교회학교 교사임명

오늘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
교사총회 : 18일(화) 오후 6시 - 801호

오늘 주일예배 시간에는 2008년 한 해 동안 각 교회학교에서 주님이 맡기신 생명을 말씀으로 양육할 교사를 임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늘 임명받는 교사들의 명단은 주보에 간지로 삽입되어 있다.

한편 오늘 임명받는 교사들은 18일(화)에 열리는

교사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이날 총회는 오후 6시에 801호에서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고 경건회 후 2007년도 교사가 부서별로 모이고 2008년도에 봉사할 교사들이 모임을 갖는 시간으로 준비된다.

2008년 순결서약식 23일(주) 접수 마감

2008년 순결서약식에 참여할 이들에 대한 접수를 계속하고 있다. 순결서약식은 우리교회가 13세 이상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레 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매년 초 첫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거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13세 이상 미혼 남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순결서약식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신청서는 각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와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접수는 12월23일(주)까지 받는다. 순결서약식 접수 시에 후견인의 이름도 함께 기재하기 바란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이며 이종윤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우리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14년째 계속하여 거행하고 있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2008년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 후원자 모집

농어촌교회 목회자 최저 생활비 보조
-신청서 오늘 주보에-

2008년도에도 민족복음화의 일환으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을 계속 전개한다.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은 본 교단 총회의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정책에 따라 농어촌교회 목회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조하는 일을 협력하고 있다. 교회 내의 개인, 가정, 기관, 단체는 약정된 구좌(1구좌: 월10만원, 1/2구좌: 월5만원)를 후원함으로써 미자립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는 오늘 주보에 간지로 삽입된 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개인이나 단체가 특별히 후원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은 지정 신청을 하여 후원할 수도 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은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호산나학교 메이크업 자원봉사자 모집

호산나학교 여학생들에게 메이크업과 관련된 교육을 해주실 성도를 찾습니다.

· 자원봉사 기간 : 2008년 2월 11일(월) ~ 20일(금) 중 2회(회당 2시간 정도)

· 날짜, 시간은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시간에 조정 가능합니다.

2008년 일꾼들에게 듣는다

진실한 마음으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2:15)



이인선 권사(제1권사회 회장)

교회의 일꾼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야 함으로 두렵고 떨림이 앞섭니다. 60세 이상 된 권사로 구성된 제1권사회는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기도와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져 다짐해 봅니다. 교회연간계획에 따라 성례를 준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나눔의 집 관리, 경로잔치, 사랑부와 디아스포라 지원과 단기선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가까이 두고 있는 권사들이지만 교회 사역에는 누구보다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 부끄럽 없는 권사회가 되려고 힘을 것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제1권사회는 일당백(一當百)으로 서울교회 모든 성도까지 가슴에 안고 간절히 기도하고 발을 씻어 주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음지에서 봉사하는 권사회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은선 권사(제2권사회 회장)

올해도 변함없이 부족한 저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미처 한해를 돌아보기도 전에 2008년도 제2권사회의 섬김을 임명 받음에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 하겠다 하시니 이는 저를 택하고 부르신 주님의 뜻으로 믿고 겸손히 순종합니다. 주님의 계획의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순간마다 기도하고, 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최선을 다 하기를 다짐 합니다.

저와 권사님들은 주님이 주신 직임을 귀히 여기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범이 되는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연약한 자 돌아보기를 소원하

여 사랑의 집 건립을 간구하는 서울교회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같은 사랑을 품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기쁨으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권사님들이 머무는 곳에는 늘 기쁨과 평화와 따뜻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모두가 교회 구석구석 손과 발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조용히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며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권사회가 있기까지 많은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전도학교 수료간증

실천하는 전도!



조정란 성도(3교구)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깨달아지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으로 드러나겠다고 생각하던 중 우리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전도대원들과 전도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8월28일 시작된 31기 전도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장석남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는 훈련교재 강의 시간은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가 넘쳤고 훈련자 집사님과 훈련생으로 한조가 되어 전도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은 두려움과 떨림이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조가 들어간 지역은 새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1층부터 시작해서 25층까지 걸어서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아직 입주가 안 된 집도 있었지만 주인이 다녀갈 지도 몰라 빠짐없이 순례자를 쫓았습니다.

겸손히 인사를 하며 예수님과 교회를 소개했고 곧바로 문 앞에서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는 저는 '강박한 심령으로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는 동안 서울교회 교패가 붙은 가정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찬 기쁨이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이사 온 한 가정은 어느 교회를 가야할지 몰라 답답해 하던 중 저희의 전도를 받고 온 가족이 출석을 하면서 만 날 때마다 좋은 교회로 인도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시고 저희가 그 동에 전도를 나갈 때면 공동현관을 열어주시며 따뜻한 차도 대접해주십니다.

어떤 세대든 결혼 전 반주자로 봉사할 만큼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 후 남편의 반대로 교회를 한 번도 못 갔다고 하며 어린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니 '하면 되는구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25층까지 전도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데 경비 아저씨 두 분이 올라와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관리실로 끌고 갔습니다. 주민이 신고를 했다며 마치 죄인 다루듯 험한 말과 샷대질을 하며 야단을 치더니 각서까지 쓰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을 하겠다고 펼 펼 뛰는 경비대장을

보면서 예전의 나라면 두 번 다시 현장에 나갈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이런 일이 만나지는 것은 내게 간증 거리가 생기는 좋은 기회요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 군

**전도는 달란트 있는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꾸준히 전하면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병이 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에 전혀 낙심을 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관리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되어 실천하지 못했던 전도는 달란트 있는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꾸준히 전하면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12주 동안 무사히 전도학교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애쓰신 장목사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여러 스텝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초대의글

영광의 주께!



오정수 장로 (할렐루아 찬양대 대장)

빛으로 오신 만왕의 왕.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
으라!

아기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신비를 찬양드립
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 또 찬
양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찬
양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으로 오신 주님을 찬

양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
라며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드립
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니 찬양드립니다. 서울 교
회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
쁜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아!



▶ 할렐루아 찬양대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0일(목) 군선교연합회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다. 21일(금) 진위고등학교 학생체플에서 설교하고 교직원 연
수회 특강을 한다.

■ 이전 개업 : 박태선 집사(5교구) 주식회사 태양정공 18일(화)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621-13 T. 031-352-4203
011-661-8903

■ 득남 : 김영희 성도(11교구 김양숙 권사 딸)

■ 득녀 : 김영희 집사 이현정 집사 가정(5교구)

■ 이사 : 서상운 성도(7교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
선마을 1102-1905 T. 011-897-1240

■ 전용순 권사(9교구)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금강@
303-2104 T. 010-8326-2522

■ 전시회 : 최지연 성도(3교구) 사진전시회 인사동 덕원갤러리
12/14~23 T. 723-7771

■ 독주회 :곽지승 성도(고2) 플루트 독주회가 그 모친 한현숙 집
사(2교구)의 피아노 반주로 22일(토) 괴스트 홀(명동
성당)에서 열린다.

■ 개업 : 이훈, 김인숙 집사(1교구) '브라질리아(스테이크집) 강
남CGV 맞은편 / T. 533-6888

■ 주간식당 봉사 : 한나 전도회(12.16) 당회원(12.23)

■ 금주의 식사 : 허백 성도 최원매 집사 가정(범사에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로

-서울교회 1층 도서실-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19일(수)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에 우리교회 1층 도서실(102호)을 투
표소로 요청해와 교회는 이를 허락하고 선거 때마다
투표소로 사용되고 있는 102호 미스바 홀에 주민들
이 출입하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당일 수요예배를 위한 출입은 밖의 계단을
통해 본당으로 진입하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
다. 또한 1층의 화장실 사용도 피해줌으로 투표소 분
위기가 조용한 가운데 국가대사가 치러지기를 기대
한다.



▲ 주님 나신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교회앞 마당에 성탄트리를 장식하였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8년 섬김위원으로 임명된 이들에게 성령충만, 은혜충만토록
2. 2007년도 승리로 마무리 하도록
3. 대속의 죽음을 주기위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4. 12월19일 대선 무사히 이루어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